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11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가 칠레농장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
것은 사실과 다름(한국경제, 서울경제 등 11.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가 칠레에 1,5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- ◇ 11.30일 한국경제 <“칠레 농장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…1,500억 투자해 7,300억 환수기대”> 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칠레 테노시 농장에 1,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가 칠레에 1,5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- 정부는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*하고 있으며, 同 타당성조사 사업에도 1.8억원 지원

* 산업부는 연평균 11~14개의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기사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용역비 2.4억원 중 1.8억원을 지원(용역기간 : '19.9~'20.12)

- 그러나, 타당성조사 이후 프로젝트의 추진여부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관사항이며, 정부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이송이 사무관(5366)